高神大學
論文集第15輯
1987. pp.243~262

성경신학의 입문

황 창 기*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2. 성경신학 서론의 문헌
3. 성경신학의 구성
4. 성경신학의 정의
5. 성경신학의 본질
6. 성경신학의 약사
7.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8.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과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시작되었는가? 또 성경신학의 방법은 무엇이며 그 과제는 무엇인가? 이 과목이 신학연구 전반에 걸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비중은 얼마나 큰가? 이런 질문은 초학자들이 가지는 질문들이다. 그러나 그 답은 쉽게 얻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철학도에게도 철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그리 간단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다고나 할까? 본고에서는 성경신학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초학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몇몇 기본적인 문제를 개괄해보고자 한다.

2. 성경신학 서론의 문헌

거의 모든 신학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분야도 비평가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조교수 신약학

것은 많이 있고 또 그 방향의 갈피를 잡기에 힘들다.[1] 그래서 초학자들이 이 분야를 큰 혼란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개혁주의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Geerhardus Vos의 *Biblical Theology*(성경신학)[2]에 나오는 제 1 장 "Introduction : The Nature and method of Biblical Theology"(서론 : 성경신학의 본질과 방법)는 성경신학의 입문을 위한 고전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가 1893년 가을 Princeton 신학교에서 당시 새로 설치된 성경신학과목의 첫 교수로 취임할 때 강의한 "The Idea of Biblical Theology as a Dcience and as a Theological Siscipline"(학문으로서 그리고 신학과목으로서 성경신학의 개념[3])은 개혁주의 성경신학을 천착시킨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구 Princeton 신학교 전통을 따라 1929년에 세워진 Westminster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 John Murray(1937-1976)의 글이다. 그는 "Systencatic Theology"(조직신학)[4]이란 논문을 썼는데, G.Vos가 성경신학(1948)을 출간한 이후 20여년만에 나온 글로서 이글의 후반부에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를 논하였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또 이 글은 그가 은퇴하기 2년 전에 쓴 것으로 그의 학문적 성숙도가 잘 반영되었다는 점과 그가 조직신학의 본질과 일부에 관하여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신학 자체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간의 관계를 여러해 동안 다루어 온 결정(結晶)이란 점에서 이 분야에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세째로 Westminster 신학교 신약과장직에 오래 있다가 최근에 조직신학 분과로 옮긴 R.Gaffin박사가 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5]이란 논문이다. 앞의 Murray교수가 주로 Vos에 집중하여 성경신학 본질 문제를 거론한데 반하여, 이 글은 그 당시 다른 대

1) 성경신학은 문헌이 다양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주제 자체가 복잡하고 또 그 선호도도 너무 자주 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The Interpreter's Dectionary of the Bible*(New york : Abingdon, 1962) Vol II pp.418-437에 K.Stendabl과 O.Betz가 Biblical Theology에 대한 항목을 쓴 이래 그 보충판이 한 권 더 나왔을 때(1976) J.Barr가 또 다시 써야 할 만큼 그 변화의 폭이 넓은 주제이다. Barr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n the years since the original edition of this dictionary no subject has undergone greater convulsions or suffered greater changes in its status than biblical theology. When the articles by Stendabl and Betz in that edition were being written, biblical theology stood at its highest point of prestige and influence"(p.104)

2) *Biblical Theology : Old and New Testament*,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sling Co. 1948. 이 책은 Vos가 1934년에 *Old and New Testament Biblical Theology*등 여러가지 등사판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그의 아들 Johannes G.Vos가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한글로 번역됨)

3) Westminster 신학교 교수 Richard B. Gaffin Jr, 가 편집한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pp. 3-24 에 서 볼 수 있으나 원래 Anson D.F. Randolph Co. (New York, 1894)에서 출판한 것이다.

4)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에 2회 (Vol. 25와 26(1963))에 걸쳐 발표했는데 그의 전집 *Collected Writtings of John Murray, Vol 4. Studies in Theology*, (Carlisle〔P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pp. 1-21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 글의 후반부는 *The New Testament Student & Theology* Vol3(1976) pp.18-31에 실려있다. 이 글은 총신대의 홍치모 교수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제목인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으로 번역, 신학지남 제49호(1982. 봄)에 실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5) *The New Testament Student & Theology* Vol3(1976) pp.32-50에 발표되었는데 그 뒤에 고려신학보 제12집(1986) pp. 31-54.

표적인 개혁 신학자들의 견해도 취급했다는 점과 또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Vos와 Murray의 견해를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운 가망성을 타진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할 논문이다.

이상 세 논문은 성경신학의 본질과 또 조직신학과의 관계, 특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규명한다는 점 이외에 서로 역사적 연계성이 있는 글이므로 초학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기본 문헌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전 Westminster 신학교 교장이요 실천신학 교수였던 E.P. Clowney박사의 What is Biblical Theology?(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6] 구약학 교수였던 O.P. Robertson의 The Outlook for Biblical Theology(성경신학의 전망)[7] 전 Eastern Mennonite College의 학장 및 동(同)신학교 신학교수였던 C.K. Lehman의 The Nature and Method of Biblical Tlealogy(성경신학의 본질과 방법)[8] 우리 신학 대학원의 오병세 박사님이 최근에 내놓은 "구약연구사 소고"[9]외에 복음주의자인 G.E. Ladd의 The History of New Testament Theology(신약신학의 역사)와 Biblical Theology, Histosy and Revelation(성경신학, 역사, 그리고 계시)[10]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의 문헌들은 사실 개혁주의적 안목이 없이는 이해가 잘 안된다. 개혁주의적 성경신학이란 "특별계시의 역사"(History of Special Revelation)[11]로 표현되는

6)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1) pp. 9-19.

7) D.F. Wells and C.H. Pinnock eds *Toward a Theology for the future* (Carol Stream ; Creation House, 1970) pp. 65-91.

8) *Biblical Theology Vol One Old Testament* (Scottdale : Herald Press, 1971) pp. 23-41, (유익한 참고도서 목록 포함)

9) 고려신학보 제12집(1986) pp. 31-54.

10)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 William B.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pp. 13-33, (참고문헌이 맨 앞에 나와있음)

11) 조직신학적인 책은 제외하고 성경신학적인 기본서를 소개하되 주로 영어권(또는 영어로 번역된)의 책으로 한정하겠다.
ⓐ G. Vos : *Biblical Theology : Old and New Testament*(1948) 번역됨.
ⓑ _____ : *The Pauline Eschatology*(1930. 재판 1979).
ⓒ _____ : *The Kingdom and the Church*(번역 하나님나라)
ⓓ Herman Ridderbos : *The coming of the kingdom* (1964).
ⓔ _____ : *Paul : An Outline of his theology*(1975).
ⓕ _____ : *When the time had fully come*(번역 하나님나라).
ⓖ C.K. Lehman : *Biblical Theology,* Vol.1 *Old Testament* (1971). Vol. 2 *New Testament* (1974).
ⓗ M.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 A Study of the Book of Deuteronomy* (1963).
ⓘ _____ : *By Oath consigned* (1968)
ⓙ _____ :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972)
ⓚ O.P. Robertson : *Christ of the Covenants* (1980)(번역됨).
ⓛ J. Murray : *Covenant Theology*(그의 전집 제 4 권에 있음).
ⓜ J.M. Battead : "The Covenant in Reformed Theology(고려신학보 제12집(1986)).
ⓝ K.Schilder : *Lentern Triology* (Christ in His Suffering Christ in His Trial, Christ in His Crucifixtion등 3 권임)(1938, 재판 1978).
ⓞ M.B. Vant Veer, *My God in Yahweh* (1980).
ⓟ S.P.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1961).

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속사적 전망(redemptive-historical perspective) 및 언약적 전망(covenantal perspective)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신학' 또는 '특별계시의 역사' 자체를 설명할 줄 몰라도 성경말씀을 개혁신학의 안목에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방면의 책도 읽는 것이 중요하다.[12]

3. 성경신학의 구상(構想)

성경신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다. 조직신학과 같이 그 역사가 길지 못하고 지난 18세기의 독일, 경건주의 분위기 속에서 합리주의의 부분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전통주의 교의학에서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살리지 못한데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학문이다.

우리는 그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출발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줄 안다.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 1 : 1, 2 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읍니다. 이 아드님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지으셨읍니다"(새번역)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의미깊은 언어를 사용하여, 성경신학의 구상(構想)과 구조에 대한 원초적인 개념을 나타내었다.[12]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13]는 점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신 사실은 획기적인 시건이다.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즉 아무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서는 이 선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다. 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가지 부분과 여러 방법[14]을 동원하시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 C.Trimp: 설교학 강의(고재수 감수, 고서희, 신득일, 한만수 공역)(1986).
ⓡ S.Greidanus: *Sola Scriptura :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1979).
ⓢ De Graaf: *Promise and Deliverance VoL 1-VoL 10*(번역 ; 약속 그리고 구원).
ⓣ C.van der Waal: *Search the Scriptures* (Vol1-Vol 10)(1978).
ⓤ 박윤선 : 성경신학(1971, 재판 1984).
ⓥ H.Bavinck: *Our Reasonable Faith(1956) chapter* VI"The content of Special Revelation" (한글으로 번역됨).
ⓦ R.Gaffin: *The Centrality of the Resurrection* (1978).
ⓧ R.Gaffin ed: *Redemptive History and Biblical Interpretation (G. Vos shorter writing) (1980).*
ⓨ *J.L. Helberg :* "구약성경 연구의 출발점과 방법" 고려신학보 제12집(1986) *pp*. 95-107.

12) *C.K. Lehman Biblical Theology* Vol I(1971) p. 23.
13) ……ο θεὸs……ελάλησεν ……
14) NEB도 πολυμερῶs를 in many different parts로, πολυτροπωs를 in many diffent ways로 번역하고 있다.

방법이란 점에서 이 방편들은 독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이다. 이 점은 변하지 않는 일관성의 법칙이요, 계속성의 법칙일 수 밖에 없다. '우리조상'에게 말하신 분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수단이 선지자들[15]에서 아들[16]로 바뀌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임으로 이 변이는 범주작으로 절대적 강세(absolute intensification)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숫자적으로도 "많은"선지자가 '유일하신 독생자'로 바꾸어진 점에서도 이 사실이 나타난다.[17] 즉 뚜렷한 불연속선이 놓여있다. 전자는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면을 보인다면, 후자 즉 그의 독생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이요 완결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많은 선지자를 동원해야 약속되던 것을 아들 '한 분'으로 성취하여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많은 선지자들에게서 단일성이 부족한 점이 암시되는 반면, 그 아들에게는 완전성이 돋보인다는 점이다.

세째로 시대적 변천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옛날'[18]과 '이 마지막 때'[19]가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근본적으로 세대(despensation)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미완성적이고 예견적이라고 하면, 후자는 완전성과 성취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초기적이라면 후자는 종국적이다. 즉 구약과 신약의 대조이다. 사실 구약의 족장들이 바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모세의 언약 및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신약의 메시야 안에서 실제로 다 성취되었다.[20]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구약의 가장 독특한 특성은 그 모든 책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았다는 점이다.(cf. 눅24 : 44). 바울도 그가 전하는 복음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서 성취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행13 : 32, 33. 참조. 갈3 : 15—18) C.K. Lehman은 히브리서 1장1, 2절에서, 성경신학의 구상(構想)을 정리하고 있는데[21]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1)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15) ἐν τοῖs προφηταιs
16) ἐν νἱῷ '선지자'에서는 복수요 관사가 붙었으나 '아들'은 단수이며, 무관사 명사(anarthrous noun)로 바뀌었는데 아들의 신분의 절대적 범주를 나타낸다(P.E. Hughes, *A Co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1977), p. 36 n. 3 : B.F. Westcott *The Epistte to the Hebrews* (1889) p. 7.
17) P.E. Hughes. ibid.
18) πάλαι
19) ἐπ εσχάτοs τῶν ημερῶν τούτων .
20) 참조. P.E. Hughes. *op. cit*., p. 37.
21) C.K. Lehman, *op. cit*., pp. 24-26.

님의 계시(divine revelation)이다.

(2)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었다.

(3)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몇몇사람—즉 선지자들—에게 한정되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권위를 가졌었다.

(4) 이 계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나타났다.

(5)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대를 위한 것이었으나 또 약속의 성격도 띠었다. 그 특성은 종말론적이었으며 '마지막 때'(latter days)를 내다보고 있었다.

(6) 이 하나님의 계시는 좋은 소식, 복음, 즉 오시는 이(The coming One)이신 메시야(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구약의 이러한 특성은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유한 것이다.

(7) 이 약속은 원시복음(창3 : 15)에서 그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

(8) 하나님의 계시는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결속되었다.

(9) 하나님의 계시는 인류 역사의 본질과 정황에 밀착되어 있다.

(10) 이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그 단일성(unity)을 보이는 반면에, 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점진성(progression)도 보여주고 있다.

(11)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spoken word of God)과 기록된 말씀(written word)인 성경 자체 사이의 관계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

(12) 성경의 독특한 가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한 점 등등도 집약할 수 있다.

성경신학의 구상 및 출발 가능성을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논한 것은 성경신학이 이 귀절 위에만 서 있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지만, 편의상 그 가능성을 증거해 보인 것 뿐이다.

4. 성경신학의 정의

Geerhardus Vos는 "성경신학이란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이다"[22]라고 정의한다. 주경신학(Exegetical Theology)은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그리고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과 함께 신학의 4대 분야 중의 하나이다. Vos가 여기서 주경신학을 맨 먼저 언급하는 것은 신학이란 처음부터 그것을 공부하는 자의 피동적이고

22) *Biblical Theology* (1948) p. 5. "Biblical Theology in that branch of Exegetical Theology Which deals with the process of the self-revelation of God deposited in the Bible".

수용적인 태도에 달려 있음을 본능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23] 이것은 또한 석의(exegesis)의 결과에 의존하는 태도인데, 이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듣는 한 과정을 잘 나타내기도 한다.

Vos에 의하면 주경신학에는 다음 4가지의 분야가 있는데 성경신학은 그 중의 한 분야라는 것이다.[24]

(a) 성경의 실제내용을 연구한다.

(b) 성경 각 권의 근원에 관한 연구로서, 여기에는 저자문제, 저작시기, 저작의 배경 등이 포함된다 …… 총론

(c) 이 개별적인 성경책이 어떻게 단일 성경(책)으로 수집되었는가……정경론

(d) 시공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에 관한 연구인데 이 계시는 성경을 문서로 기록하는 애초부터 그 배후에 놓인 것이며, 또 나타난 자료가 기록됨에 따라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성경신학

Vos의 영향을 크게받은 C.K. Lehman도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활동의 빛 속에서 인간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 그가 인간에게 말씀하신 인간의 영적 체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특성을 취급하는 성경해석의 한 분야이다"[25]라고 하면서, 이 사상을 가진 학자들은 J.H. Titcomb, G.F. Oehler, Hermann Schultz, A.B. Davidson, Geerhardus Vos, E.J. Young, J.B. Payne을 들었다.[26]

Richard Gaffin은 Vos와 비슷한 시대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학자들인 구Princeton의 J.A. Alexander, C.W. Hodge, B.B. Warfield나 화란의 Abraham Kayper와 Herman Bavinck 가운데서도 Vos가 성경신학 개념 확립 면에서 단연 앞선다[27]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개혁주의 전통 속에서 성경신학의 개념 정립에 관해서는 Vos보다 앞선 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저서는 창조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 개혁주의 신학에 신선한 충격을 주입한 것이다. 성경신학의 개념이 어떻게 천착할지 모르는, 정돈(停頓)된 상태에서 Vos가 성경신학 교수(Princeton)로 임명된 사실, Warfield의 좀 더 형식적인 거론, 그리고 Bavinck와 Kayper의 실질적인 관심 등을 Vos가 나아갈 방향을 적어도 최초로 인정하는 셈이며 동시에 그 중요성도 확인된 셈이다.[28]

23) *Ibid* p. 4.
24) *Ibid* pp. 4-5.
25) *Biblical Theology Vol One* p. 26.
26) *Ibid*.
27) Gaffin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p. 35.
28) *Ibid* p.38. In this respect his work can be called creative and injects a fresh impulse into Reformed Theology. In balance, however, the fact of his appointment, the more formed discussion of Warfield, and the material concern of Barvinck and Kuyper indicatc of least incipiente apprecation for the direction in which he was going as well as a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John Murray교수는 성경신학의 개념에 관하여 그의 스승 Vos를 그대로 따르면서, 특히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관계를 논하면서 이 분야 연구에 많은 정성을 쏟았으며[30] R.Gaffin, O.P. Robertson등이 그 뒤를 따르는 소장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5. 성경신학의 본질

위에서 정의한 성경신학에서 "계시"란 말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다. 즉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계시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① 역사 세계안에 있는 인간에게 ② 계시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계시를 다루는 성경신학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성경신학은 계시 발전 과정에 나타나는 역사적 점진성을 중시한다. 계시는 그 자체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종결되는 행위가 아니고 오랜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행위로 펼쳐졌다. 이 발전과정(process)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계시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래서 Vos는 성경신학이란 용어보다 특별계시 역사(History of Special Revelation)라는 표현이 더 합당하지만 성경신학이란 용어가 오래 쓰였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30]

또 이 특별계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Redemption)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래서 특별계시는 어떤 면에서 구속계시(redemption revelation)이다.[31]

"이 계시는 최초의 우리 선조에게 부여된 원시복음(protevangelium)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확장되었으며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갔다. 그리하여 때가 차고 시대가 완성됨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속사업을 성취하심으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32]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은 족장시대, 모세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의 특별한 성숙단계를 잘 부각시켜야 한다.[33]

성경신학이 계시의 역사를 취급한다면 이 역사가 관장하는 점진성에 순응해야 한다. 점진성을 무시하면 역사를 무시하고 동시에 계시 자체도 허물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은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어진 계시의 자료들을 그 시대의 하나

29) *Ibid* p.39.; John Murray "Systematic Theology" in his *Collected Writings Vol 4. studies in Theology* p. 9 ff.
30) Vos, *BiblicalTheology* (1943) p. v, 14; J. Murray, "Systematic Theology" in his collected writings Vol 4.(1982), pp. 9-10.
31) J. Murray *ibid.*
32) *Ibid*.
33) O.P. Robertson, "The outlook for biblical Theology" p. 67.

님의 계시의 진보 정도에 따라 연구해야 한다. 즉 후시대의 계시 자료들을 그 이전의 어느 시대에 맞추어 해석할 수 없다.[34]

둘째로 성경신학은 역사 안에서 계시의 실제적 구현(actual embodiment)을 취급한다.

G. Vos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부활은 역사의 사건으로서 그 자체가 계시적 의미를 지니며, 역사 속에 구체화(incarnate)된 계시 발전과정의 사건을 나타내는 실례라고 한다.[35] 그리고 행위계시(act-revelation)와 말씀 계시(word-revelation)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6]

그럼, 역사 속에 계시가 어떻게 구현 되었는가?

(a)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37]

특수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일을 위해 인간을 사용하신다. 이것이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여러 시대에 걸쳐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계시는 단일성(unity)을 이룩한다. 이 말은 구약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신학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Helberg 교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나타내신 계시의 책을 "구약신학"이란 이름으로 혼돈과 오도를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38]

(b) 말씀과 역사는 이제 결속되었다.[39]

성경은 특히 구약은 역사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취급한다.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 어떤 관념이나 논문이 아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말씀 계시와 매우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계시가 역사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즉 말씀계시는 역사가 일어난 후 그것을 주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언되고 인도함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그 실례를 창세기 1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또 선지자들에게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약속의 성격을 가진 것도 이 때문이다.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이 뒤에 역사 속

34) J.Murray *op. cit.*, pp. 18-19.
35) Vos *op. cit.*, p. 6.
36) *Ibid* pp. 6-7.
37) God self openbaar Hom-deur mense J.L. Helberg, *Die Here Regeer* (1980) p. 1.
38) Helberg *Ibid* pp. 1-2. Die O.T. gee nie bloot verskillende persone se teologieë wat uiteenlopend en selfs teenstrydig sou kon wees nie. Dit gee die openbaring van God wat tot'n verskeidenheid persone in'n verskeidenheid beroepe gekom het en so aan die geslagte deurgegee is. Tog vorm dit' n wesenlike eenheid as die een Goddelike openbaring. Daarom praat ons ook van openbaringsgeskiedenis. Die gangbare naam Teologie van die O.T.moet in die lig van bogenoemde liewer vermy word. Die term is verwarrend en misleidend. Daarby het dit deur sy teologiese geskiedenis ook twyfelagtige assosiasies opgedoen. 그리고 역시 고려신학보 제12집 (1986) p. 104에서도 그는 같은 주장을 하였다.
39) Woord en geskiednis is nou verbind Helberg. *ibid* p. 2.

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데, 성경신학은 이것을 다룬다.[40] Vos는 이 사실을 "먼저 말씀(word), 그 다음에 사실(fact), 다음에 다시 해설(interpretive word)"이라는 순서라고 하면서, "구약은 예언적인 예비 말씀이며 복음서는 구원계시의 사실(redemptive-revelatory fact)을 기록하고, 서신서는 그에 따른 최종 해석(final interpretation)을 보충해준다"[41]고 말한다.

(c) 계시는 역사이다.[42]

성경은 계시 역사 즉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며, 따라서 그 점진성이 있었다. 그 실례로 하나님의 구원계시는 아브라함 이후 이사야까지 점점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 구속 계획의 새로운 국면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사건과 역사적 상황을 이용하신다. 그것은 일률적인 (gelykmatige) 발달 및 성장과정 또는 진화가 아니다. 초자연적 요소도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출과 에스겔 37장 참조)

계시역사라는 성경신학은 강한 역사적 성격을 띠기는 하나 평범한 역사과목은 아니다. 계시역사는 실제로 성경역사와 다름이 없으나, 성경역사가 사건의 의미와 그 맥락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하며 따라서 비역사적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43]

40) *Ibid*. Dit gaan veral om God se optrede in die geskiedenis en deur die geskiedenis. Die Ou Testamentiese boeke gee in'n groot mate.geskiedenis : van Genesis tot by Ester. Dit het te doen met werklike geskiedenis, dinge wat werklik gebeur het : nie net voorstellings, ideale of voorskrifte nie. Dit handel oor die konkrete geskiedenis ense daarom vir ons iets vir ons konkrete, alledaagse lewe. Dit is praktiese godsdiens.

Die geskiedenis wat die O.T. teken, staan nie op homself nie, maar is baie nou verbind met die woordopenbaring. Die woordopenbaring. Die woordopenbaring is nie net'n kommentaar op die geskiedenis nadat die geskiedenis plaasgevind het nie, maar dit gaan dikwels aan die gebeurtenisse vooraf, kondig dit aan, lei dit in en bring dit voort. Reeds in Gen. 1 word elke keer vermeld dat Gos "gesê" het wat moet gebeur. So is dit ook by Abraham en veral by die profete. Die O.T. dra dan ook sterk die karakter van'n belofte. Dit handel oor dinge wat deur die woord afgekondig is maar wat later in die geskiedenis hulle volle vervulling sal vind.

41) G. Vos. *op. cit*., p. 7.

42) Die openbaring is histories, Helberg, *opcit* p. 2.

43) *Ibid* pp. 2-3. Die O.T. gee openbaringsgeskiedenis, of, andders gestel, geskiedenis van die openbaring van God. Dit hou in dat daar'n eenheid in die openbaring is. Van die begin af is daar' n gedagte of'n waarheid wat in kiem aanwesig is en wat dwarsdeur die geskiedenis geld. Dit het egter'n geskiedenis, 'n voortgang. Die openbaring oor die verlossingswerk van God word byvoorbeeld duideliker vanaf Abraham tot Jesaja. God gebruik telkens nuwe gebeurtenisse en historiese situasies om deur sy woord nuwe aspekte van sy verlossingsplan met die mensdom te ontsluit. Dit is egter nie'n blote natuurlike en gelykmatige ontwikkeling, groeiproses of ewolusie onder God se leiding nie. Daar is ook 'n bo-natuurlike element. God gryp verrassend in en laat gebeurtenisse en gedagtegange van mense anders verloop as wat natuurlikerwys verwag sou kon word. Die redding uit die Babiloniese ballingskap is 'n voorbeeld daarvan. Dit was intlik reeds met die bondsvolk verby, maar God het dié volk as't ware uit die dood laat opstaan (Eseg. 37).

Hoewel die vak Openbaringsgeskiedenis 'n sterk historiese aanpak het, volg dit sy eie dissipline en nie dié van gewone geskiedenis nie. Die Bybel gee nie alles in chronologiese tydsorde nie, bv. die digterlike boeke en die profetiêse boeke. Die tydsaspek is hier dus nie van primere belang nie.

세째로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의 유기적 완전성(organic wholiness of scripture)에 집중한다.

계시의 점진성이 가지는 유기적 특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먼저 이 유기적 성격은 계시의 점진성이 모든 시대에 두루 그 유기적이 아닌, 절대적 온전성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유기적 점진성은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것에서 비교적 더 순수하고 온전한 것으로 진화되어 가는 운동과는 아무 상관 없다"[44] Vos는 씨앗 형태(seed-form)에서 완전한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을 유기적 점진성의 예로 사용한다. 사실 질적인 의미에서 씨앗은 나무보다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는다.[45] 이것은 구속계시의 진전과 비슷하다. 즉 이미 씨앗 형태의 초기단계에도 구속에 충족한 계시가 존재하고 있다. 그 단계에서부터 계시는 구속의 진전에 따라 진전해 나간다. 즉 구속과 계시는 보조가 일치한다. Vos는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구속(redemption)이 천천히 진전하거나 정돈상태이면, 계시도 거기에 따라 나아간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이 그 점진성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유기적이다. 그것은 획일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전진하는 보조에 있어서 "시대적"(epochal)이다. 위대한 획기적인(epoch-making)구속 행위가 축적되는 곳에 계시의 운동도 따라서 가속화되며 그 체적도 증가한다. 나아가서 계시의 유기적 특성으로부터 우리는 그 다양성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다양성은 유기적 생명 성숙의 증상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보다 신약에서 이 다양성이 더욱 뚜렷하며, 모세 시대보다 선지시대에 더욱 빈번하다.[46]

말하자면 성경에서 시종일관성의 개념(Concept of coherence)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계시 진리의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그 본체(substance)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유지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연속성(discontinuity) 보다도 연속성(continuity)의 원리가 성경신학의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47]

이 점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정확무오성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권위와 유기적 영감론은 결코 어둔한 획일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리는 원래 부요하고 복합적인데 이는 하나님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다.

네째로 성경신학은 목표를 향하여 점진하는 성경계시 진행의 전모(totality)를 보아야 한다.

계시 역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실도, 그 진행의 완성(Consummation)과의 정

Die openbaringsgeskiedenis verskil nie wesenlik van Bybelse geskiedenis nie. Dit is wel meer as die Bybelgeskiedenis geinteresseerd in die sin en samehang van die feite en gee daarom ook meer aandag aan nie-historiese gedeeltes.

44) *Gaffin, op. cit*., p. 40.

45) Vos, *Biblical Theology* p. 7.

46) *Ibid*.

47) O.P. Robertson *op. cit*., p. 67.

확한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는 바로 이해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계시 역사의 최종결(consummation)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Vos의 성경 신학의 정의는 정말 잘 정립되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결(Consummation in Jesus Christ)은 그의 모든 저서를 통해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의 성경신학 본질 설명에는 이것이 빠져있다.[48]

H.Bavinck는 특별 계시의 내용이 시종 일관 그리스도 중심(Christ-centered)으로 강하게 부각시키며[49] 그 목적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됨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 그리스도는 구약 계시의 진정한 내용이 있기에(요5 : 39, 벧전1 : 11, 계19 : 10), 그는 새 언약 세대에도 그 머릿돌이요 면류관이다. 그는 율법의, 모든 의의(마3 : 15, 5 : 17), 모든 약속의 성취이며 이 약속은 그 안에서 '예'요 '아멘'이다(고후1 : 20) 그는 또 그의 피로 지금 맺은 새언약의 성취이다(마26 : 28).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 그 직분과 제도들, 성전과 제단, 제사와 의식, 그 예언, 시, 지혜의 교훈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와 목적을 성취한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성취인데, 첫째, 그의 인품에서, 다음에는 그의 말씀과 사역에서, 그의 탄생과 생애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성취되었다.[50]

O.P. Robertson은 "구약의 관점에서, 성경계시의 역사적 발전 과정(Historical process)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종결이란 점에서 보아야 하며" 그리고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이신 종결(Consummation)을 예상한 역사적 발전 과정이란 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51]

요약하자면, 성경신학은 역사적으로 점진적이며, 역사속에 실제로 구현되었고, 유기적 특성을 가졌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하는 목표를 가졌다.

6. 성경신학의 약사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에만 호소함으로 성경신학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 근본원리는 analogia scripturae(성경의 대비) 즉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기에 와서 학자들이 그들이 지닌 종교개혁의 유산을 기키지 못하고, 성경에 완전히 의존하는데서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조직신학적인 원리를 지지하는 성경본문(proof-texts)모음(수집록)—Collegia Biblica—을 만들어 성

48) 참조 *Ibid* p. 85 n. 9.
49) *Our reasonable faith : A Survey of Christian doctrine* translated from the Dutch edition *Magnelia Dei*. (1956) pp. 73-94.
50) *Ibid*pp. 93-94.
51) *op. cit*., p. 68.

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꾀하였는데 이것이 성경신학의 효시였다. 그 다음에는 독일 경건주의자(pietists)들이 당시 메마르고 딱딱한 교의학에 대항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성경신학이었다. (C.Haymann ; 1708)

계몽주의시대(Enlightenment)에 들어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권위로부터 해방을 받게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자, 성경도 인간의 이성의 테스트 아래로 떨어져 이제 성경의 권위는 무시당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생긴 두 가지의 성경신학 연구 방법론이 대두 되었다. 그 하나는 문학비평(literary criticism)으로, 저자 개인의 작품과 원래의 양식(original form)을 성경에서 가려내는 방법론으로 독일에서 성행되었다. (Reimarus, Lessing, Semler)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방법(historical method)으로 성경의 사건과 견해(views)들이 발전하게 된 요인들(factors)에 관심을 두는데, 주로 영국의 이신론(Deism)적 분위기에서 애용되었다(Toland, Tindal). 이때까지는 아무도 성경신학 이란 말을 쓰려하지 않았다.[52]

18세기 후반에 들어와 성경신학이 점점 조직신학에서부터 독립하기 시작했다. A.F. Büsching의 *Advantage of Biblical Theology over scholaslicism*[53](1978), J.S. Semler의 4권으로 된 *Treatise on the Free Investigation of the Canon*(1771-75)[54], G. T. Zachariä의 *Biblical Theology*[55]등의 작품은 처음으로 성경신학이 조직신학에 대결하는 입장에 서거나[56], 전통적 교의학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역사 과목이 되게 하였으며[57] 또 조직신학 및 성경해석학이 주도 면밀한 석의로 신학적 교훈의 체계를 세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58] 그러나 성경신학이 독립과목은 되지 못하였다.

성경신학이 교의학에서 독립하여 순수한 역사과목으로 출발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는 J.P. Gabler(1753-1826)가 1787년 3월31일 Altdorf 대학교 취임 연설로 한 특강 "Oratio de iusto discriminine theologicae biblicae et dogmaticae regundisque recte utriusque finibus"(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올바른 구분과 그들 과목의 목표에 대한 바른 정의에 대하여)이었다.[60] 그는 이 강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 성경신학은 역사적 성격을 지니며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바를 전한다. 반대로 조직신학은 교훈적 성격을 지니며, 어떤 특수한 신학자가 그의 능력, 시간, 나이, 장소, 분파 및 학파, 기타 등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철학화한 것을 가르친다.[60]

52) O. Betz, "History of Biblical Theology"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I (1962) p. 432.
53) *Ibid* p. 432 ; G. Hasel, New Testament Theology Basic *issues in the current Debate* (1978) p. 20.
54) Betz, *op. cit*., p. 432.
55) *Ibid* ; Hasel *op. cit*., p. 21.
56) Hasel, *Ibid* p. 20.
57) *Ibid* p. 21.
58) *Ibid*
59) *Ibid* p. 22 ; Betz *op. cit*., p. 433 ; Vos *op. cit*.,p. 9.
60) "Oratio" in Kleine theologische Schriften II 183-184. Cited by Hasel *Ibid* pp. 22-23.

성경을 역사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의 공로라 할 수 있으나, Gabler 자신이 철학적 합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영감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성을 내세우는 합리주의 사상은 성경신학 연구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몽주의 뒤에 온 낭만주의와 관념주의는 성경신학의 역사적,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특히 Hegel의 철학은 사색적인 상상력을 키워주었는데 이로써 모든 역사적 안목들을 하나의 발전하는 영적 과정으로 정돈하게 하였다.[61]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헤겔의 역사철학이 성경연구에 깊숙히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19세기 말부터 Wellhausen과 그의 학파들이 구약성경을 문학—비평적으로 연구함으로 위세를 떨치었다. 그 결과 성경연구에서 신학적 관심은 줄어지고 역사저 관심은 고조되었으며, 구약 성경신학은 이스라엘의 종교역사로 전락하게 되었다. 몇몇 구약학자들이 신학적 의의를 강조하는 일 외에는 대개 고대 근동의 종교를 연구하는데 몰두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Tellael-Amarna토판(1887) 및 Hammurabi법전(1910)등의 고고학적 발굴은 이스라엘 주위의 종교세계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켰던 것이다.[62]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이 합리주의자의 손에 의해서 성경적 종교의 역사적 연구로 전락하여, 합리주의자 자신들도 믿지 않는 합리주의적 신학으로 되어 버렸다.[64] 이러한 성경신학에는 성경의 권위, 영감론, 성경의 신적요소 등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analogia scripturae와 analogia fidei[64]와 같은 성경해석 원리는 배신당하고, 대신에 인간의 이성과 자율(autonomy)이 주인이 되어 역사적 방법의 상대주의를 고조함으로 성경은 한갓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종교 문서화 되고 근동의 다른 민족의 고대 종교 문헌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19세기에 발달된 여러 합리주의적 원리들은 특히 Hegel의 역사철학과 결탁함으로 소위 성경신학의 자멸(suicide of the discipline)로 이끌어갔다."[65]

이러는 중에 그들의 신학은 윤리화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즉 성경은 점점 다신론(Polytheism)에서 단일신론(Monotheism)으로 발전되어가는 진화에 대한 증거라는 견해, 복음서는 예수의 전기로서 예수를 황금률을 잘 가르치는 교사라는 견해, 그리고 하나님의 부성(fatherfood), 개인의 영원한 가치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libralism)가

61) Betz *op. cit.*, p. 433.
62) *Ibid*
63) S.P.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1961), pp. 10-11.
64) 신앙의 대비, 영어로 analogy of faith는 analogia scripturae와 함께 성경해석의 원리로서 분명하지 못한 성경 본문은 더 분명한 귀절로 조명하여 해보는 것을 의미한다(B.A. Demarest, calogy of faith, in *Evangelical Dictiorary of Theology* (1984) pp. 43-44.
65) E.P. Clowney, *op. cit.*, p. 11.

그 대종을 이루었다.[66]

우리는 이 견해중 Harnack의 *What is Christianity?*에서 잘 볼 수 있는데 Albert Schweitzer는 Harnack의 이 자유주의적 신약해석서에 대하여 "예수의 교훈이 지닌 그 당시의 한계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1899년으로 예수를 옮겨서 다룬 복음으로 시작한다"[67]고 혹평하였다. 이 말은 자유주의가 너무 그 당시의 역사와 상황을 무시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현대화된 예수"(modernizing Jesus) "부르좌 기독교"(bourgeois Christianity)를 전하며 서구화 및 20세기의 껍질(Western and twentieth-century skin)을 쓴 채 성경을 대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항하여 종교사학파(religionsgeschichtliche Schule)[69]의 반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학파의 급진주의자들이 자유주의를 붕괴시켰다. 종교사학파는 성경역사속의 인간, 사상, 제도를 서로 그려내었다. 즉 역사를 강조하여 '나사렛의 목수'와 '드고아의 작은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70] 이 말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Biblical times)와 현대(modern times)의 차이점이 강조되어야 하고, 성경이 말하는 사상(Biblical thought)과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사상이 다르며 동양과 서양이 다르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로 부각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연구(descriptive study of biblica thought)이다. 즉 좋건, 싫건 그대로 진술하고 기술하자는 방법론이다. 그러나 역사를 강조하는 역사 비평주의를 내세우면서 성경의 사건(홍해를 건너는 사실, 예수의 부활등)의 역사성을 무시하고서, 그 사건이 그 당시 저자나 독자에게 어떤 기능과 의미를 지녔느냐하는 Sits im Leben(삶의 정황)에 더 관심을 가지며, 복음과 오늘날과의 상관성(relevance)을 등한히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경의 과거의 의미(What it meant)와 현재의 의미(What it means)의 차이를 고수하려는 성경해석은 오늘날까지 큰 논란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앞에 말한 종교사가의 역사주의(historicism)에 대항하는 운동이 1차 대전 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신약에서 위기신학(Crisis theology)또 신정통주의(Neoorthodoxy)적 접근을 시도한 Karl Barth(로마서 주석), 실존주의적 방법론을 주장하는 R. Bultmann, (신약신학, 또 1926년에 쓴 예수에 관한 책) 구속사적 방법을 고수하는 O.

66) Libralism은 우리가 말하는 정통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즉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비평주의가 아니라 1900년 전후에 Schleiermacher에서 시작하여 Ritschi, Harnack, Schweitzer로 이어지는 신학적 자유주의를 의미한다(C.C. Anderson, *Critical Quests of Jesus* (1969) p. 25 n. 1
67) K.Stendahl "Contemporary Biblical Theology" in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 (1962) p. 419. "Harnack almost entirely ignores the contemporary limitations of Jesus' teaching, and starts out with a Gospel which carries him down without difficulty to the year 1899"
68) 참조 *Ibid* p. 418. 대표적 학자로는 Graff, Wellhausen, Gunkel, Kuenen, Wrede, Troeltsch, Bousset 등
69) 참조 *Ibid*.
70) 참조 *Ibid* p. 420.

Cullmann(그리스도와 시간, 신약기독론)등이 대표적이며 구약에서는 W.F. Albright (석기시대에서 기독교까지) G.E. Wright(행하시는 하나님) W.Eichrodt(구약신학), G von Rad(구약신학)등이 대표적 인물인데 이들은 모두 옛날 셈족의 사상과 현대인의 사상 간의 긴장을 부각시킨 저서를 내놓았다.[70]

이들은 분명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역사주의에 반기를 들었었다. 이는 성경신학의 부흥운동이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analogy of scripture(성경의 대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 자체가 스스로 시종일관한 표준(a self-consistent standard)을 제시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71] 결국 그들은 analogy of the modern consciousness(현대의식의 대비)로 돌아가 버렸다.

우리는 Karl Barth의 입장을 밝힘으로 위에서 말한 역사주의 대항 운동으로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겠다. Barth는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한다. 즉 첫째 나타난 말씀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Revealed Word or the Word that God spoke)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 쓰여진 말씀(Written Word)로서 성경이며, 세째는 전파된 말씀(preached Word)이다.[72] Barth에게는 진정한 말씀은 오직 나타난 또는 말씀하여진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말씀이지 쓰여진 말씀은 전자와 꼭 같을 수 없다고 한다. 즉 쓰여진 말씀은 오직 사랑과 조우할(encounter)때만이 나타난 말씀의 성격을 지닌다.[73] 이는 그가 Kierkegaard에게 영향을 입은 실존주의적인 면이며, 주관주의로 빠지게 하는 면이다. 즉 Barth에 의하면 성경은 충분한 진리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조우<만남>(encounter)만이 진리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하나님 운반기구(vehicle) 또는 증거(witness)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이 쓰여진 말씀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성경신학의 역사적 근거를 빼앗아 버린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성경을 연구하려는 강한 반격운동을 성경신학 운동(Biblical theological movement)[74]이라고 한다. 이는 자유주의 신학의 건조한, 역사적 해석(historical exegesis) 그분석적 경향 그 자료 비평에 의존, 성경자료를 인근 근동지방의 문화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경향, 진화론, 안일한 우주적 신학적 입장, 신학적 관심 및 실존적 열성의 부족 등에 대한 반격 운동이다.[75] 한 마디로 말해서 성경신학 운동은 자유주의 학자들에게 결여되었던 성경의 신학적차원을 강조한

71) E.P. Clowney. *op. cit.*, pp. 11-12.
72) C.K. Lehman. *op. cit.*, p. 31.
73) *Ibid.*
74) 이 운동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Yale 대학교의 구약학자 B.S. Childs가 *Biblical Theology in crisis*(1970) 1장—4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1940년때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주로 북미 및 유럽, 신학자 사이에 일어난 운동이다. 참조, Hasel "Biblical Theological Movement" in the *Evargalical Dictionary of Theology*(1984) pp. 149-152.
75) J.Barr "Biblical Theology" in the *Interpretei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 Vol (1976) p. 105.

자체 신학운동이다.[76] 그러나 이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아직도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 전형(modes)과 사고 방식(thought patterns), 전체(presuppositions) 그리고 방법론(methods)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운동은 최근에 자유주의의 기본 방법론인 역사 비평주의의 붕괴(bankrupt)를 보여주거나 (W. Wink), 그 종막을 고하며 (G.Maier)새로운 성경 및 신학의 연구법—신학적 역사적 방법(G.F. Hasel)또는 구조주의 (D.Patte)—을 모색하는 좀더 새로운 시도를 촉진하고 있다.[77]

지금까지 우리는 비평가의 입장에서 성경신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성경신학이 특수한 신학과목으로 그 지위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G. Vos가 1893년 가을부터 Princeton 신학교 교수회의로부터 성경신학 교수로 임명된데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78]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있기까지 어떤 경로가 있었는가? 이 질문도 숙제로 남겨야 하겠다. 사실 Gaffin박사는 Vos가 1894년 5월에 취임연설에서 그의 성경신학의 근본 개념을 피력하기까지 Princeton 및 화란의 몇몇 개혁주의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는데 그쳤다.[79] 즉 Vos가 자기 앞 세대의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18세기 초에 합리주의가 크게 득세하기 이전에 J.A. Bengel(1687-1752) F.C. Oetinger(1702-82) J.Bohme J.T. Beck. E.W. Hengstenberg, J.C.K. Von Hofmann등의 이름을 biblicist(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자들) 또는 fundamentalist(근본주의자)란 제목하에서 비평가들이 다루고 있음을 안다.[80] 그러나 이들에게서부터 G. Vos까지 객관적으로 다룬 역사적 고찰은 아직 없다.

7.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용어상 서로 혼돈이 있을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깝다. 그 만큼 그 관계를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두 과목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성경신학이라고 하니 가장 성경적이며, 따라서 조직신학보다 더 성경적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직신학은 일반계시를 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경신학에는 일반계시의 진리가 없다. 조직신학은 그 본질상 성경적이요 그 방법론이 성경신학의 접근방법과 다를 뿐이다.

76) Hasel "Biblical Theological movement" p. 149.
77) *Ibid* p. 152.
78) Gaffin "Systematic theology and biblical theology" p. 35.
79) *Ibid* pp. 35-38.
80) O. Betz *op. cit.*, p. 434. 정당한 평가는 오병세, "구약신학 연구사 보고" 고려신학보 제12집 (1986) pp. 38-41을 보라.

두 과목은 다 같은 성경의 자료를 다룬다. 그런데 성경신학은 특별계시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별계시의 자료들을 취급하며, 조직신학은 완성된 작품으로서의 특별계시의 전모(totality)안에서 다룬다.[81] 따라서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펼쳐지는 과정을 다루기에, 하나님의 계시의 양상(mode), 과정(process), 점진성(progress), 그리고 그 내용을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한편,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전체계시의 입장에서 교훈들을 조직화하고 그것을 교리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Vos는 성경신학의 원리는 역사적이요, 조직신학의 원리는 논리적이며, 성경신학이 발전의 선(a line of development)을 그린다면, 조직신학은 원(circle)을 그린다고 표현하였다.[82]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실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신학은 성경에 기록된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 전개되는 것을 연구한다. 따라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안에서 맺은 언약을 각각 그 역사적 배경(historical settings)속에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본질, 내용, 독특성을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직신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에 대하여 그 전체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모든 언약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상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서의 교훈을 엮어내는 것이 조직신학의 방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atonement) 그리스도의 왕직(Christ Kingship) 성찬(Lord's Supper)과 같은 다른 큼직한 신학적 교훈도 이 교리 내용에 곁들여 언약 교리의 뜻이 더욱 깊고 넓도록 한다.

사실상 조직신학은 위에 언급한 규모 이상으로 더 광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직신학은 루터주의, 캘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재세례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 신정통주의 등과 같은 거대한 기독교 교리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포함한다.[83] 그리고 각 교리 체계의 역사를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범위는 더욱 광범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이 두 과목의 상호의존관계는 어떤 것인가? John Murray 교수는 대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신학은 조직신학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즉 계시의 주된 근원은 성경이다. 성경을 상술하는 학문은 조직신학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조직신학의 과업은 특정한 단락들을 상술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한 개개의 단락들 속에 내포된 교훈을 상호결합내지 체계화한다.

81) J. Murray "Systematic theology" p. 9. "Biblical theology deals with the data of special revelation from the stand point of its history : systematic theology deals with the same in its totalty as a finished product."
82) Vos *op. cit.*, p. 16.
83) C.K. Lehman *op. cit.*, pp. 37-38.

이것이 조직신학의 과업이라 할 때 신학이 얼마나 주경(exegesis)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이와같이 석의(exegesis)는 조직신학의 근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하다. 주경에 뿌리 박지 않은 조직신학은 이론이요 철학에 불과하여 그 생명력을 잃고 마는 것이다. 즉 조직신학이 무기력한 것은 그것이 주경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주경학은 조직신학을 지켜서 말씀에 접하게 하며 또 말씀에서 끌어낸 생명력을 조직신학에 공급한다.[84]

8. 맺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신학의 문헌구상, 정의, 본질, 약사, 조직신학과의 관계 등을 대략 살펴보았다. 특히 개혁주의 전통을 따른 성경신학의 정의 및 본질을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었다. Princeton 신학교의 G. Vos를 필두로 해서 Westminster 신학교 출신학자로 이어지는 맥락을 중심으로 살폈다. 성경신학의 독보적인 맥락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공헌해 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와 유기적 영감론을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이요 곧 특별계시의 역사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성경계시를 중시하며, 그 단일성(unity)과 종결(consummation)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신학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이 엮어 내는 성경신학이 역사에서는 개혁주의가 완전히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Biblicism(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주의) 또는 fundamentalism(근본주의)이라는 모욕적인 천대를 받는다. 합리주의적 발상에서 태어나 역사비평주의적 도구를 구비하고 자라난 그들이 개혁주의를 이해할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비평가들의 성경신학은 자기들도 믿지 않는 것이며 지금 자중지난을 만나서 자체 내에서 그 위기설이 분분하다. 성경을 한낮 인간의 작품으로 보고 성령의 역사는 아예 도외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값이다. 그들의 성경신학은 각종 철학 및 세속사상에 중독되었다.

개혁주의 전통에도 비슷한 위험은 없는지? 비평가들에게서 오랜 공방전을 거쳐나온 역사주의대 이론신학의 대립을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What it meant와 What it means의 출처나 알고 사용하며, 이 구분에 내포된 의미를 감지하고 있는지…? 계시(역)사 또는 구속(역)사란 말에 '진리의 격하'가 없는가? 즉 계시, 구속이란 원래 하나님의 것, 저 세상의 것, 영원 세계의 것인데 역사라는 지상의 것, 이 세상의 것, 시간세계의 것을 혼합하여 철학 세계로 비하시키지 않았는지…? 그래서 생명력을 잃지 않았는지…?

84) J. Murray, op. cit., p. 17.

계시는 역사(시간) 세계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의 것, 저 세상의 정체(identity)를 지닐 때 생명력이 있다. 즉 진리는 성령의 세계에 속한 것으로 예우하는 자에게만 능력을 발한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세상의 변사와 지혜"와는 상관 없기 때문이다. (고전1 : 18—20)

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5 輯
1987. pp.263~297

一般教育과 基督教 教育에 있어서의 教育課程 및 教授-學習의 槪念에 對한 比較硏究

金 龍 燮*

◇目 次◇

Ⅰ. 序 論
Ⅱ. 教育課程
1. 一般教育의 槪念
2. 基督教教育의 槪念
Ⅲ. 教授-學習
1. 教授
1) 一般教育의 槪念
2) 基督教教育의 槪念
2. 學習
1) 人間發達에 있어서의 學習의 位置
2) 一般教育의 槪念
3) 基督教教育의 槪念
3. 教授-學習의 槪念
Ⅳ. 結 論
參考文獻

Ⅰ. 序 論

무릇, 教育은 虛空을 探索하는 人間의 공허한 努力이 아니다.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教育은 教育者나 教育機關에 依해 教育 고유의 과업을 成就하기 爲해 피교육자를 對象으로 하여 作用하는 一定한 機能이요 過程이다. 바꾸어 말하면, 教育은 잘 계획되고 組織된 教授-學習의 內容과 生活經驗, 즉 教育課程을 前提로 하고 있다. 教育은 教

* 교수, 이론교육